

##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주 제:	“ 영혼의 배고픔. ”	“연중 제 18 주일 ”	2009년 8월 2일
복음 묵상:	[요한 6,24-35]	[탈출 16,2-4.12-15]	[에페 4,17.20-24]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방황합니다. 벗어나야지 하면서도 매여 있고, 물욕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물질적인 것에만 마음과 눈이 쏠려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복음은 강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썩어 없어지고 말 허망한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함의 원천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지만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것을 먹어도 결국 죽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먹고 살아가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썩어 없어질 빵은 우리도 역시 썩어 없어질 존재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인 생명의 빵을 주십니다. 썩어 없어지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양식을 예수님은 주십니다. 한번 먹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이고, 생명의 빛이며,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대한 믿음을 통해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참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의 빵을 먹지 않고서는 영원한 배고픔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빵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빵에 관한 영적갈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동 차호철 신부님 강론 중에서)

###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지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요.
- 신제완 대건 안드레아 베이스장 부모님 방문 관제로 금주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즐거운 시간되시길.

### 알림:

금주 (8/2)부터 오후 성가 연습을 실시합니다. 모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중식제공)

본당 조셉 학사님 부제 서품을 위하여

- 9월 20일 본당에서 맥그리 주교님 집전으로 학사님 부제 서품식에 따른 성가연습.
- 학사님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상식 코너

#### 예수님의 칭호

1. 그리스도: 그리스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 ‘기름을 발라 축성된 임금’이란 뜻
2.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 나셨다는 뜻. 인류의 죄악과 파멸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
3. 메시아: 히브리어 ‘마시아’(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서 유래.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
4. 랍비: 구약성서에서는 ‘나의 주인’, 신약성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르키는 ‘선생님’
5. 성자: 하느님의 아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제 2위를 가르키는 칭호
6. 임마누엘: 히브리어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



그때에 24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25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빠,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26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27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28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29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30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31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32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33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34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35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1분 명상

♡희망이란♡

- 루신의 《고향》 중에서 -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탕:**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1 코린 16,14).”